

강남 간다던 엄마 한숨 쉬는 이유는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Cover Story 토지거래허가제가 쏘아올린 부동산시장 대혼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아파트, 앞으로 6개월간 정부 허가 없인 못 사요!”

이런 뉴스 헤드라인, 들어본 적 있나요? 부모님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찾아보는 뉴스예요. 바로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인데,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려워 보이죠?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적 거래(짧은 기간 집값 상승을 노리고 집을 사고파는 행동)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1979년에 처음 도입됐을 땐 땅 투기를 막으려는 목적이 컸지만 최근엔 집값 급등을 막는데 쓰이고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이나 집을 사고 팔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강남3구 같은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해 놓으면 이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실제로 들어가 살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잘 안 나와요. 심지어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꼭 들어가 살아야 하고 2년 동안은 세입자를 받을 수 없어요.

혹시 ‘갭투자’란 말 들어보셨나요? 갭투자란 아파트를 사면서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받는 방식의 투자를 뜻해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집을 사두고는 싶은데, 집값 전체를 모두 마련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gap)만 가

지고 일단 집을 사두는 거죠. 3억원짜리 집을 2억원에 전세 세입자를 받는다면, 1억원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처럼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투자가 불가능해지죠.

원래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시장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규제를 풀었죠. 그러자 집값이 크게 뛰고 갭투자도 다시 활발해졌어요. 서울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규제를 너무 빨리 풀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래서 서울시는 35일 만에 생각을 바꿨어요. 이번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묶으면서 규제를 더 강화해 버린 거예요. “한 달 조금 넘게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되돌리는 건 정책 실패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집값이 많이 오르면 월세·전세 같은 주거 비용도 높아지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여러분도 “집값이 왜 오르고 내리지?” “정부는 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까” 같은 궁금증을 갖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현상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김혜순 기자



국가공인 **매경 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빅테크 규제 놓고 … 美 vs 유럽 기싸움 시작됐다



쉽게 이해하는
시사뉴스



유럽연합은 최근 구글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요즘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구 꼽으시겠어요? 아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쉬지 않고 세계를 들었다 놔다 하는 인물이죠. 그가 쏟아낸 다양한 정책 중 세계 각국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건 아마 ‘상호관세 부과’일 거예요.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인 관세를 서로 공정하게 부과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다른 국가들에 엄포를 놓아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관세율이 높아지면, 경제 규모가 큰 미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까요.

‘비관세 장벽’에 엄포 놓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무기 삼아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하지 말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어요.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으로 불리는 규제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거예요. 비관세 장벽이란 수입품에 직접 부과하는 관세 외에도 해외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를 말해요.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거론하는 대표적 비관세 장벽이에요. 구글·애플 등 ‘빅테크’로 불리는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편하게 장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빅테크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해 왔어요.

빅테크 규제 앞장섰던 유럽

거대 IT 기업 견제에 적극적인 EU는 최근 몇 년간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려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2022년에 제정돼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이 대표적이에요. 빅테크들이 디지털 시장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내용이에요.

디지털시장법 제정 당시 해외 언론은 ‘역사적인 법이 탄생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상징성이 컸어요. 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이 전 세계에서 올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든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상습적인 반복 위반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어요. EU의 디지털시장법 제정 이후 세계 각국에선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늘어났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이뤄졌고요.

디지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으로 정해진 건 기업 가치와 매출·사용자 규모를 기준으로 7개 회사예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틱톡), 부킹닷컴이죠. 바이트댄스와 부킹닷컴을 제외한 5개 회사가 미국 기업이에요.

엄포에 굴하지 않은 EU

지난 19일(현지시간) EU는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한 첫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EU는 구글 검색이 쇼핑·호텔·항공권의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구글의 자체 서비스를 우선 제시하는 등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경쟁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불공정 행위라는 거죠.

EU는 또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선 이용자들에게 앱 내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 외에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공식 조상 대상은 아니지만, EU는 이날 애플에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애플 기기가 다른 브랜드 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요구했어요. 기기들의 호환성을 높일 경우 개발자들에게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될 것이고, 유럽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vs 유럽, 고조되는 긴장감

EU의 발표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빅테크 규제를 이어 나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돼요. 유럽 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미국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비관세 장벽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도, 정면으로 대응한 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상호관세’를 4월 2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이번 발표로 미국과 EU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데요. 강대국 간에 양보 없이 벌어지는 이 신경전의 끝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매일경제 디그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장대환
발행·편집·인쇄인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매일경제아카데미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매경·금융저축정보센터 기획 후원 신한은행 KYOBO 우정사업본부 MERITZ 한국투자증권



집,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우왕좌왕 한다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판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붙어 있다.

뉴스1

최근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어요. 아래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규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가격 어떻게 결정되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날 때 결정돼요. 수요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뜻해요. 강남·서초·송파·용산 같은 지역은 학교와 교통, 편의시설 등이 잘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지역 집에 대한 수요가 높죠. 공급은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의 양이에요. 공급이 충분하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 같은 도시는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새로 집을 지을 공간도 한정돼 있어서 급격히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요. 서울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인기 지역은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돼 있어 집값이 높은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오르면 왜 문제가 될까?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면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월세나 전세 같은 거주비 부담도 높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투기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투기는 짧은 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실제 자신이 살 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집값 거품이 꺼질 위험도 높아져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와 정책을 펴는 것이랍니다.

정부 규제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사람들이 집

을 사려면 구청장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실거주 의무도 생기는데 집을 산 후 2년 동안은 반드시 직접 살아야 해서 전세를 주거나 바로 되팔기 어려워졌어요.

정부 규제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으면 실제 자신이 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살 기회를 얻기 쉬워져요.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규제가 적용되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잠시 멈추거나 완화될 수 있어요. 나아가 “더 이상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투기 열기가 진정되고 집을 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부작용도 있을까?

정부 규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거예요. 구청장 허가처럼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지면 사람들은 거래를 꺼리게 돼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집을 옮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풍선 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규제를 특정 지역에만 강하게 적용하면 사람들이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포·성동·강동구 같은 곳의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또 주택 구입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 임대차 시장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셋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쓰면 당장에는 투기 수요를 막고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완화시켜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집값을 단기만에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아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계속 거론돼요.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면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가 언제 다시 생길지, 언제 또 해제될지’ 예상하기 어려워져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혜순 기자

강남3구 토허제 해제하자
잠실 등 부동산시장 폭등
다급한 정부 더 센 규제
전세 끼고 집 못사게 막아

일각선 “오락가락 정책
되레 부동산 혼란 부추겨”
타지역 집값상승 풍선효과

엉뚱한 사람이 피해 보는 스팸메일



최병일 교수님의
길 위의 경제학



챗GPT가 생성한 '스팸 메일' 관련 이미지.

스팸 메일의 스팸이 그 '스팸'이라고?

돼지고기와 햄을 혼합해서 만든 스팸 통조림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조리가 간편하다는 장점 덕분에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군의 전투식량으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대중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반찬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스팸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전쟁 중이나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귀한 식재료였지만, 최근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으로 인식되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스팸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스팸 메일(Spam Mail)'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스팸 메일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영국의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톤(Monty Python)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이 출연한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한 부부가 식당에 가서 메뉴를 확인하는데, 모든 요리에 스팸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메뉴판을 가득 채운 스팸 요리들은 손님이 원치 않는 음식까지 강제로 선택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스팸과 계란, 소시지와 스팸, 스팸, 스팸, 스팸, 계란과 스팸"처럼 스팸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요소를 희화화했습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면서 '스팸=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형성됐고, 이후 인터넷과 이메일이 보편화되면서 원하지 않는 광고 메일이 넘쳐나자 사람들은 이를 '스팸 메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팸 메일과 부정적 외부효과

그렇다면 경제학에서는 스팸 메일과 같은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에서 '외부효과(Externality)'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손실을 주지만, 그 영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받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외부효과는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나뉘는데, 스팸 메일은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팸 메일을 보내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불특정 다수에 게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하며, 그중 단 1%만 반응해도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고 전단을 제작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인터넷 발달로 이메일 발송 비용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즉, 1만명에게 이메일로 광고 메일을 보내나 100만명에게 보내나 비용 차이가 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스팸 메일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중요한 이메일을 놓칠 위험이 커지고, 이를 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사회 전체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심각한 이유는 그로 인해 사회 전체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 차단을 위해 이메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기업들은 중요한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개인들도 피싱이나 악성코드가 포함된 스팸 메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스팸 메일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스팸 메일뿐만 아니라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스팸 메일을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기업들이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 사람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접하는 콘텐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별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강원대학교 교수



시사용어CHECK

외부효과

어떤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혜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 양봉업자가 과수원 옆에서 벌을 키우면, 벌이 꽃가루를 옮겨 주면서 자연스레 과수원의 수확량이 증가하죠.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자에게 따로 돈을 내지 않더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일본이 마구 찍어낸 돈... 한국전쟁 원인이라고요?



6·25전쟁 군인들과 피란민.



임하빈 선생님의
돈이 움직인 세계사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반도의 자원을 수탈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등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일본은 해방 이후 한반도를 떠나면서도 한반도에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남겼으며, 이는 후에 6·25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항복으로 한반도는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곧바로 독립국가로서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할 예정이었고 식민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과 조선총독부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그들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일본 본토는 심각한 식량난과 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도시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는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에만 100만명, 다른 식민지까지 합치면 600만명 이상의 일본인이 한꺼번에 귀국한다면 일본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부터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과 남아 있는 일본인 사이의 애매한 공존이 시작되었고, 전후의 혼란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수많은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뱅크런이 발생하자 조선 은행들은 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은행은 파산하게 되고, 이는 사회 혼란을 더욱 가중시켜 조선에 남아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은행권 엔을 대량으로 찍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조선총독부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떠나야 할 조선의 경제 상황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은행에서는 모든 유통기가 풀가동되며 조선은행권 엔을 마구 인쇄하기 시작했고, 일본 본토에

서 돈을 인쇄한 후 수송기로 조선에 들어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돈을 찍어낸 종이가 모자라자 저질 종이에까지 새 화폐를 찍어낸 끝에 조선총독부는 엄청난 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은행권은 조선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들은 이 돈을 사용해 조선에서 금, 은, 쌀 등 가치 있는 물품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 때문에 화폐 가치는 급락하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쌀값만 해도 1945년 8월에 한가마(80kg)에 60원이었던 것이 불과 1년 만에 2500원이 될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미군정이 화폐개혁을 시도했으나 이미 물가가 폭등해버린 상황이라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정은 소련과 공산주의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강력한 물가통제 정책을 실시해 물가를 바로잡았습니다. 소련군이 미군과 달리 조선인,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마구 약탈했음에도 북한 지역 주민들은 소련군정에 큰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때 남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은 소련군정은 물가도 잡고 잘하는데 미군정은 무능하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과 국민의 불만이 합쳐져 1946년에는 대규모 노동자 파업과 시위가 발생했고, 1948년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사건 등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며 1948년에 갖 건국한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지지를 받아 북한을 장악한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지켜보며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에 지원을 요청해 전쟁 준비를 시작했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엄청난 돈이 6·25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대한민국 내부의 불안을 초래하고 김일성이 이를 남침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산현초등학교 교사



시사용어 CHECK

뱅크런

은행은 예금주들이 맡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행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예금주들이 물리게 되는데 은행은 당장 모든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소식이 퍼지면 나머지 예금주들도 은행에 달려와 돈을 달라고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첫 교과서 이완용이 만들었다고?



비상교육 교과서 박물관 '라키비움'의 첫 번째 테마 "대한민국 교육의 시작과 끝 : 교과서를 거닐다"라는 문구가 도입부 벽면에 쓰여 있다. 직접 촬영

갑자기 눈도 오고 날씨도 추워졌던 3월 셋째 주. 찬바람을 많이 맞기는 했지만,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다녀 왔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고 멋진 공간일 것이라 장담해요.

여러분은 비상(飛上), '높이 날아오른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저는 비행기,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분, K팝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교과서'를 통해 한국 교육의 수준과 위상을 높이 날아오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교육 교과서 박물관인 '라키비움(LARCHIVEUM)'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교과서 박물관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전시돼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키비움'이라는 단어는 도서관(Library), 수장고(Archive) 그리고 박물관(Museum) 3개의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것이며, 3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융복합 교과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라키비움'은 비상교육 신사옥 그라운드 V동 L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L은 일반적인 로비(Lobby)가 아니라 라키비움의 L이라고 하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아치형으로 디자인된 멋진 입구가 보입니다. 분위기 좋은 고급 브런치 식당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려는 찰나, 한 문장의 커다란 문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시작과 끝 : 교과서를 거닐다."

'거닐다'라는 표현이 '교과서'라는 단어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뭔가 어릴 적 교과서를 넘기며 만졌던 종이의 감촉과 기분 좋은 책 내음이 날 것 같은 표현입니다.

박물관의 공간은 교과서 역사, 교과서 문학, 특별전시관 등 크게 3개로 구분되고, 전시 테마는 '교과서를 거닐다'와 '한글과 교과서'였습니다. 박물관은 입구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형태로 복잡하지 않게 동선이 구성돼 있어 관람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면서 재관람하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최적의 공간 활용을 통해 작은 공간 안에 1700여 점의 교과서 및 관련 물품을 전시해 놓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라키비움은 '책가도'를 모티브로 해 공간을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책가도는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가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것으로, 책은 물론 도자기와 향로, 꽃 등이 책장 안에 놓인 모습을 그린 조선시대 그림입니다.

전시가 시작되는 도입부에 실제 책가도를 구현한 책장도 만들어 전시해 놓았는데 그림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구현된 모습을 보니 느낌이 새롭더군요. 그림으로는 조금 낡고 빈티지스럽게 보였었는데 실제로는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들어 '정조가 디자인에 있어서 시대를 많이 앞서갔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입부의 멋진 '책가도'를 지나면 첫 번째 테마가 시작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교과서 모습을 역사 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기, 한국전쟁기, 그리고 현재까지 교과서란 교과서는 모두 다 찾아서 가져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 교과서와 문헌들을 전부 온전히 보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선조들이 얼마나 책과 교육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근대화 교과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국민소학독본'입니다. 국민소학독본은 1895년 가을, 지금으로부터 무려 130년 전, 고종의 '교육입국조서'를 받들어 학부(學部)에서 발행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당시 '국민소학독본' 제작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학부대신(현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완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완용은 을사5적 중 한 명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앞잡이였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고종이 '국민소학독본'을 제작하고 약 12년 후 학부에서는 교과서를 '국어독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때 '국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민족교육을 통제하려던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출간된 국어독본은 실질적인 한국어 교육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인들은 '국어'라는 단어까지 빼앗아 '국어=일본어'라는 공식을 만들었고, 세종대왕의 멋진 훈민정음과 한국어는 '조선어'라는 과목으로 비하돼 편찬됐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말과 글을 중요시했던 선조들의 비통함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탐방정보 CHECK

1.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2길 54 ground V, 비상교육

2. 이용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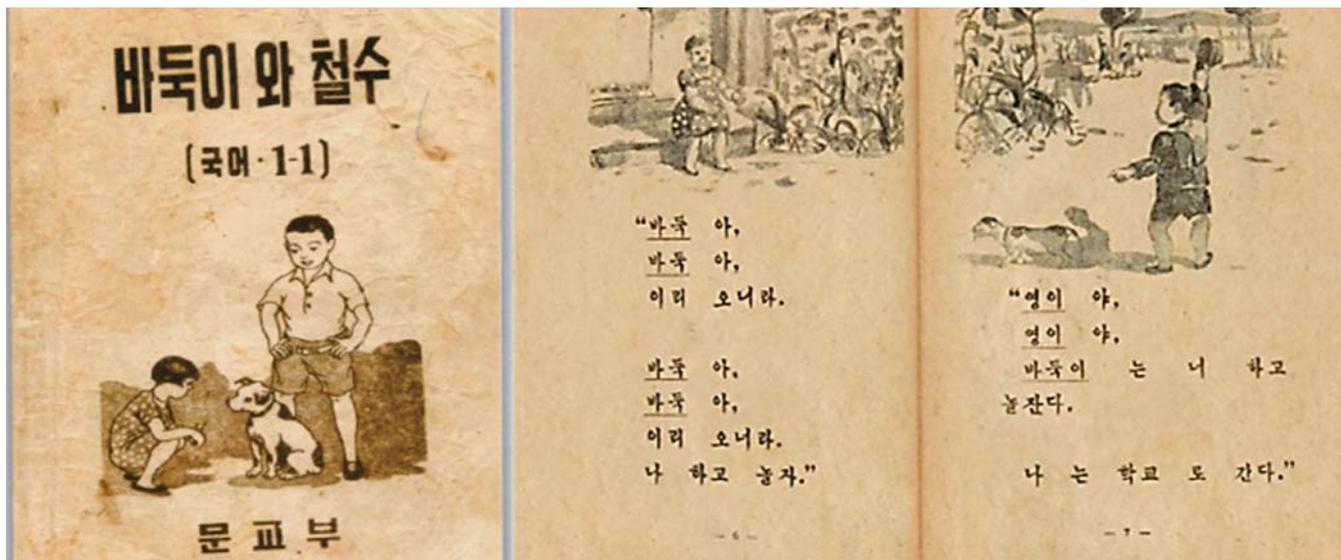
3. 이용료

무료

4. 관람대상

학생(7세~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관계자

1950년 국어책 제목은 바둑이와 철수... 영희는 없네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출간된 교과서 '바둑이와 철수'의 표지와 속지.

매경DB

여러분은 세로쓰기로 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박물관에 전시된 옛날 서적이거나 한국 전통 디자인 등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도 처음에는 세로쓰기인 위에서 아래로 읽는 방식으로 출간됐다고 하는데요.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1945년 광복 이후 곧바로 현재와 동일한 가로쓰기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신문은 계속해서 세로쓰기 방식으로 출간하다 1999년 이후야 세로쓰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교육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받았던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의 문맹률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광복 당시 한국 정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바로 두 번째 테마 '한글과 교과서'가 그 내용이지요. 벽에 쓰인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라는 주시경 선생님의 명언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교육 수준이 높아져 1966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문맹률을 조사하고 있지 않는데요. 통계청에서는 현재 한국의 문맹률을 1% 이내로 보고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도 이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편찬돼 출간한 교과서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마 깜짝 놀랄 텐데요. 바로 '바둑이와 철수'입니다. 철수와 바둑이도 아니고, 철수와 영희도 아니고, 바둑이와 철수라니!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문교부에서 편수사로 일하던 박창해 선생님의 창작품을 교과서로 엮은 것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문맹 퇴치를 위해 기획된 교과서라고 하네요. 특히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되는 콘텐츠로 유명한데, 요즘 SNS 등에서 철수와 영희의 대화를 유명한 짤이나 광고로도 많이 쓰고 있어서 어린 친구들도 다들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원래는 '영희'가 아니라 '영이'였던 사실도 여기서 처음 알게 됐네요!

교과서를 통한 교육은 6·25전쟁 상황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16일 문교부는 '전시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해 전시 교육과정 교과서를 제작하고 피란자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는데요. 교과서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비행기' '군함'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등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통 속에서도 공부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비상라키비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1955년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의 모든 교과서를 한쪽 벽면에 쪽 전시해놓은 코너입니다.

각 개정 차시 및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특징들이 재미있었습니다. 교과서 표지 그림과 외관의 퀄리티가 조금씩 상승하는 게 보이는 것도 웃음 포인트였답니다. 그중 처음 보는 제목의 교과서가 있어서 담당자님께 여쭙봤는데요. 바로 '승공'이라는 제목의 교과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승공'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담당자님이 설명해주시길 교과서는 한 나라의 역사와 시대상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당시 상황들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승공'은 '공산주의로부터 승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960년대 반공(反共) 사상 교육이 중요시되던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7차 교육과정 코너에서 제가 공부했던 교과서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반갑더라고요. 저는 학년이 지난 교과서의 표지 제목을 '국어'에서 '국어'로, '도덕'에서 '도덕'으로 장난스럽게 바꿔 친구들과 즐거워했던 경험도 있고 교과서 한쪽 모서리에 그림을 여러 장 그리고 넘기면서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비록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런 학창 시절 추억이 담긴 교과서도 볼 수 있다면 향수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제작될 교과서들도 계속해서 전시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어찌면 '대한민국 교육의 시작과 끝'보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시작과 미래'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문학 작품과 작가를 소개해주는 '문학' 코너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진달래꽃' '해에게서 소년에게' '혈의 누' 등 학창 시절 공부했던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교육의 교과서 박물관인 '비상라키비움'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땠나요? 분위기도 좋고 전시된 내용들도 너무 재미있었는데, 방명록 및 감상을 남길 수 있는 코너도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일반인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7세부터 19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자유롭게 방문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현진 연구원



시사상식 CHECK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작가 27인

김소월, 김수영, 김영랑, 김유정, 김춘수, 민태원, 박경리, 박두진, 박목월, 박완서, 백석, 법정, 신영록, 유지환, 윤동주, 윤오영, 이상, 이육사, 이청준, 이태준, 이효석, 정지용, 정호승, 조세희, 피천득, 한용운, 황순원

우주비행사 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과서 밖 과학이야기



챗GPT가 생성한 '우주 비행사' 관련 이미지.

SF가 현실로?

영화 '마션'에서는 주인공이 사고로 인해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죽은 줄로만 알고 철수하지만, 그는 홀로 살아남아 동료의 남기고 간 디스코 음악을 들으며 감자를 재배하고, 물을 만들어 내며 화성에서의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지구와의 연락에 성공하고, 결국 극적으로 구조돼 지구로 귀환하게 되죠. 지난 3월 18일(현지시간), 실제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가 미국 플로리다 앞바다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들의 원래 일정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단 8일만 체류하는 것이었지만, 우주캡슐 '스타라이너'의 결함으로 인해 귀환이 몇 달간 지연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것이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우주비행사들의 몸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렇다면 이 우주비행사들의 몸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주 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중력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이를 '미세중력' 상태라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에 맞서 몸을 지탱하느라 골격근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중력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육이 덜 사용되면서 위축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지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나이에서 생기는 '근감소증'과 유사한 현상이 우주에서는 실제로 단 며칠 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근육은 온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힘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주의 미세중력 상태는 심혈관계 질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주에서는 심장 근육 또한 위축돼 심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중력이 거의 없으니 혈액이 신체 위쪽으로 이동해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죠. 유럽우주국(ESA)은 이러한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침대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머리 쪽이 6도 아래로 기울어진 침대에서 60일 동안 생활했는데, 이는 우주에서 혈액이 신체 위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재현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주 환경에서 인체가 겪는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죠.

이처럼 혈압이 상승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혈액과 체액이 머리 쪽으로 쏠리면서 얼굴, 눈, 더 나아가 시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니다. 이를 바로 '우주 시력 장애'라고 합니다.

NASA에 따르면 7일 정도 우주에서 머물 경우 눈의 압력이 92%까지 증가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안구 뒤쪽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신경 부종을 유발하고 안구 길이가 짧아져서 원시가 심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고,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신체 변화,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주에서의 신체 변화 연구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 발생하는 근감소증과 골밀도 감소 현상을 연구하면서, 고령층이나 장기 입원 환자들이 겪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시력 저하와 안압 상승이 흔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시력 장애 연구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 탐사 준비를 돕고 우주 체류 기간을 늘려 더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인류가 달이나 화성에 장기간 체류할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런 연구가 필수적인 것이죠. 이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는 인류가 우주의 한 행성에 관광지를 만들어 자유롭게 여행하고 거주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정주희 연구원



미세중력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우주환경의 대표적 특징

침대 실험

유럽 우주국(ESA)이 실행한
우주환경을 재현한 실험

우주 시력 장애

우주에서 안압이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증상

재미없는 글, 질문으로 살려요

〈처음 쓴 글〉

나는 원래 게임에 큰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친구의 추천으로 롤을 처음 해 봤고, 처음엔 어렵기만 했다. 하지만 지는 게 억울해서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폭 빠져 있었다. 첫 킬을 따냈을 때의 짜릿함, 팀원들과의 협력,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 롤을 처음 시작하려면 챔피언 하나를 정해 연습하고, 아이템 빌드와 스킬 콤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점점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롤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자!

〈문장 단위로 끊어보기〉

- ① 나는 원래 게임에 큰 흥미가 없었다. (생각한 것)
- ② 그런데 친구의 추천으로 롤을 처음 해 봤고, 처음엔 어렵기만 했다. (행한 것)
- ③ 하지만 지는 게 억울해서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폭 빠져 있었다. (행한 것)
- ④ 첫 킬을 따냈을 때의 짜릿함, 팀원들과의 협력,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 (느낀 것)
- ⑤ 롤을 처음 시작하려면 챔피언 하나를 정해 연습하고, 아이템 빌드와 스킬 콤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 것)
- ⑥ 처음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점점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한 것)
- ⑦ 이제, 롤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자! (말한 것)

지후의 고민

지후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휴대폰 메모장에 글을 써 왔습니다. 지후의 글을 읽어 보니 100자 남짓한 짧은 글. 삼촌은 처음 쓴 글치고 훌륭하다고 칭찬했지만 글밥도 적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후는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지만 지후의 글을 처음 읽는 사람은 친구가 무슨 말로 추천했는지, 처음에 무엇이 어려웠는지, 킬이 무엇인지, 왜 짜릿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글쓰기의 목적

글은 읽는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하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도 이해할 수 있지만 독자는 글에 적힌 내용이 전부이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글쓰기란 결국 내 생각을 꺼내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글은 밋밋하고 재미없기 마련입니다. 독자는 그런 글을 냉정하게 덮어 버립니다.

육하원칙 준수

삼촌은 지후의 글이 밋밋한 원인을 찾기 위해 문장 단위로 끊어 보았습니다. 지후의 글에는 생각한 것과 행한 것만 많고, 본 것과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겪은 일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 다양한 표현을 골고루 써야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육하원칙 중에 ‘왜’ ‘무엇’ ‘어떻게’가 빠져 있었습니다. 삼촌은 지후가 글을 생생하게 고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육실천이음연구소 연구위원



이상수 선생님의 글쓰기 교실

삼촌 : 지후야, 친구가 롤을 추천할 때 뭐라고 말했니?
 지후 : ‘나랑 게임 한 판 해 볼래?’라고 말했지.
 삼촌 : 그래, 들은 말을 그대로 글에 넣어 보자.
 삼촌 : 처음엔 어렵기만 했다고 썼는데, 뭐가 어려웠지?
 지후 : 용어도 낯설고, 방법도 몰랐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
 삼촌 : 그랬구나. 그걸 글에 넣으면 왜 어려웠는지 독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
 삼촌 : 킬이 뭐야? 첫 킬을 따냈을 때, 어떻게 짜릿했어?
 지후 : 킬은 상대 챔피언을 처치하면 얻는 점수인데, 더블 킬은 연속으로 두 명의 챔피언을, 트리플 킬은 세 명의 챔피언을 연속으로 처치하면 얻는 점수야.
 삼촌 : 그렇구나. 첫 킬을 어떻게 땀는지, 킬을 따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래?

지후 : 롤은 5명이 한 팀이 되어 하는 게임이라서 협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친구들과 적을 무찌르는 과정이 짜릿했어. 더블 킬, 트리플 킬이 나올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렸어.
 삼촌 : 방금 이야기한 것도 글에 넣으면 글이 더 생생해지겠는데! 마지막으로 롤을 처음하는 유저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후 : 챔피언을 이것저것 바꾸지 말고 처음에는 하나를 골라 연습하는 게 좋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도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야.
 삼촌 : 지금까지 지후가 말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글을 고쳐 써 볼까?
 지후 : 응, 그러니까 본 것, 들은 것, 말한 것, 행한 것, 생각한 것, 느낀 것을 글에 골고루 넣어야 한다는 거지?
 삼촌 : 맞아! 지후가 생각보다 똑똑한걸.

글쓰기 꼭꼭!

1. 글쓰기란 내 생각을 꺼내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일입니다.
2. 글을 생생하게 쓰려면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 다양한 표현이 골고루 들어갔는지 살펴보세요.
3.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 중에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보다 싸게 산 친구... 가격차별 왜 일어날까



틈매경TEST
공부합시다



창덕궁 낙선재 내부.

매경DB

창덕궁이나 덕수궁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역사적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명승지를 입장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방문하는데, 궁과 능원들은 관광객에게는 정가를 받는 반면 지역주민에게는 50%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와 같은 가격책정 방식에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을까요?

‘가격차별’은 구매자의 지불용의가격(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구매자의 심리적 상한가격)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다면 판매자는 비싼 가격을 치를 용의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해 이윤을 늘릴 수 있어요.

관광객은 해당 지역 명승지를 방문할 기회가 적어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관람을 원할 수 있지만 인근 거주민의 경우 원할 때 수시로 방문할 수 있어 관광객만큼 비싼 값을 치르면서 굳이 관람을 원하지는 않겠죠. 즉, 지불용의가격이 관광객에 비해 낮은 지역주민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장료를 제공함으로써 명승지 방문 빈도를 높여 이윤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격차별은 판매자가 이윤을 늘리기 위해 쓰지만 꼭 판매자에게만 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불용의가격이 낮아 기존 시장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하지 못하던 구매자도 싼값에 구매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처럼 가격차별은 재화 거래량을 늘려 사회후생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면 판매자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격차별을 통해 손쉽게 이윤을 늘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가격차별은 첫째, 소비자의 지불용의가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소비자를 여러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가격을 원하는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셋째, 소비자들 간 재판매 거래가 없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이 조건들이 동시에 달성되리라 쉽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지불용의가격은 재화에서 얻는 구매자의 심리적 가치로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 노인처럼 외관상 드러나는 특징으로부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교복 차림에 명백히 어려 보인다면 학생으로, 머리가 희끗희

끗하고 늘어 보인다면 노인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통해 학생이나 노인인지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학생인지 혹은 노인인지 알 수만 있다면 통상 이들이 시간보다 금전적인 것에 더 민감하다는 통념에 기초해 통신요금 할인과 같은 가격차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불용의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매자의 특징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구매자의 지불용의가격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재화 가격을 판매자 임의로 책정할 수 없다면 가격차별이 불가능합니다. 가령 완전경쟁시장처럼 동질의 재화가 수많은 경쟁업체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면 판매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판매자가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앞의 두 조건이 성립해도 소비자들 간 원활한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판매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늘리지 못합니다. 가령 장당 1만원에 판매되는 박물관 입장권을 지역주민에 한해 50% 할인혜택을 준다면, 지역주민은 5000원에 입장권을 구매한 뒤 이를 타지 관광객에게 1만 원에 되팔아 5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속을 통해 재판매 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면 박물관은 1만 원의 이익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박물관은 5000원의 이익만 얻게 됩니다. 지역주민은 재판매 거래를 통해 박물관에 귀속돼야 할 5000원 이익을 가로챈 것과 같습니다.

〈문제〉

판매자가 아래와 같은 판매 전략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이 전략이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학생, 노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 지역주민에 대한 박물관 입장료 할인

〈보기〉

- ㉠ 소비자들 간 재판매를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재화가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
- ㉢ 각 소비자의 지불용의가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 소비자를 가격탄력성에 따라 서로 다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은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합니다. ㉡의 ‘가격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구매량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구매량이 가격변화에 민감합니다. 구매량이 가격변화에 민감할수록 지불용의가격이 작다는 뜻이므로, 가격탄력성은 지불용의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셈입니다. 따라서 ㉡은 첫 번째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 경우 ‘완전경쟁시장’을 ‘독과점시장’으로 고쳐야 옳은 설명입니다. ㉣은 가격차별을 통해 판매자가 이윤을 늘릴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조건이 충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은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모든 소비자의 지불용의가격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가격차별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 ㉣

최봉제 매일경제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우리가 함께 만드는 ‘사랑의 원주율’

초코파이를 받았다
피를 뽑고 약해질 때마다
착해지는 기분이 된다

피주머니가 빵봉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안
원의 둘레를 재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무수한 직선들을 잇고 이어서
곡선을 만들었을 수학자에 대해
사실 휘어짐이란 착시일 뿐이라고

뼈의 모양은 직선이지만 서로의 뼈를 비스듬히 잇고
뼈를 또 잇고
이어서
둥그런 원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상처를 솜으로 막아 피를 굳게 하는 동안엔
모두가 조금씩만 아파주면
한 사람은 전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초코파이와 오렌지주스는 맛있고 누군가는
상냥했다
상냥한 사람이 되기까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다

헌혈의 집을 나서자
파이가 빨간 비닐을 벗으며 둥그렇게 떠오르고 있고

그 속으로 역광을 만들며 걸어가는 사람들
인간의 모양이 휘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한 사람을 위해 팔을 꺾는 사람들과 있었다
우리가 햇볕 속에 함께 있음을
무수한 뼈를 엮어 만든 포옹이라 느낄 때
지평선은 물결이 되어
일렁거리고

이제 바늘자국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돌고
돌아서
나의 차례였다

—조은윤, ‘원주율’
(시집 ‘햇볕 찌기’ 창비 펴냄, 2022)

타인에 대한 혐오와 편 가르기, 양극화 갈등,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인 세상,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데도 자기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누리는 일은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빵 한 쪽, 물 한 모금, 돈 몇 푼도 아까운데 하물며 피는 어떻겠어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피를 나누는 행위는 그래서 정말이지 숭고합니다.

헌혈자에게 ‘초코파이’를 주는 것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소모된 기력을 빵으로 보충하라는 뜻이지요. 헌혈자가 피를 내어주고 빵을 받을 때, 피와 빵 사이에는 등가가 성립됩니다. 위 시는 그 등가의 상상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화자는 헌혈을 하는 동안 “원의 둘레를 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직선과 곡선, 휘어짐의 착시, ‘뼈의 모양’에 까지 사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 사유의 비약적 전개는 “피주머니가 빵봉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곡선 운동의 관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화자가 말했듯 “사실 휘어짐이란 착시일 뿐”이지요. 지구는 등속직선 운동을 하지만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변속곡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수한 직선들’이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래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어진 두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직선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땐 평행선이 되어 닿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땐 극과 극으로 영영 멀어집니다. 두 직선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수직과 수평의 교차뿐인데, 이는 한순간 서로를 고통스럽게 뚫어 관통할 뿐 끝내 각기 다른 지점으로 뻗어가고야 말지요.

화자가 “뼈의 모양은 직선”이라고 했을 때, 직선은 인간이 지닌 본래의 운동 상태가 됩니다. 인간은 직선으로 뻗어나가며 경쟁하고, 양 극단으로 달리고, 날카로운 창처럼 서로를 찌르는 관성을 지녔습니다. 시인은 이 각자도생의 이기적 인간 사회를 폭력의 세계로 규정합니다.

시인은 직선의 폭력을 극복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서로의 뼈를 비스듬히 잇고 뼈를 또 잇고 이어서 둥그런 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을 만들면 서로 닿을 수 있지요. “무수한 뼈를 엮어 만든 포옹”은 “우리가 햇볕 속에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타자를 안아주는 포옹은 물론이고, 헌혈 또한 ‘뼈를 이어 원을 만드는’ 이타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헌혈은 ‘피’를 통해 나와 타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내 생명의 일부를 내어줌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희생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만 아파주”는 이 희생으로 인해 “한 사람은 전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자가 “바늘자국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돌고 돌아서 나의 차례”, 즉 그 ‘조금씩만’의 희생을 이제 그가 타자로부터 받게 된 까닭이지요.

서로의 뼈를 잇고 이어서 만든 둥그런 원에는 원주율이 존재합니다. 이 원주율 ‘파이(π)’는 끝이 없는 무리수이자 초월수입니다. 가장 완전한 형태인 원을 이루는 질서인 이타적 사랑과 희생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겁니다.

이병철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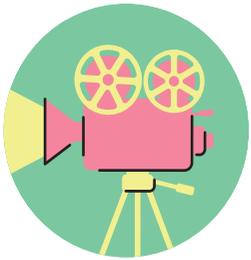
이병철 시인의
시 소개



시집 ‘햇볕 찌기’.

연합뉴스

인간 대신 우주로 간 강아지의 여정은



문화로 만나는 세상
뮤지컬 '라이카'



뮤지컬 '라이카' 무대 사진.

바쁜 학업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극장이라는 열차 속에 앉아 무대라는 터널을 지나 현실과는 다른 공연 속 세상을 만나봐요. 오늘은 뮤지컬 '라이카' 속 우주개 라이카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대 속에 개막한 뮤지컬 '라이카'

창작 뮤지컬 '라이카'가 지난 3월 14일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을 선도하는 창작진과 믿고 보는 배우들이 만나면서 개막 전부터 일부 회차가 매진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뮤지컬 '라이카'는 작가 한정석, 작곡가 이선영, 연출 박소영이 함께 작업한 일명 '한이박'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한이박은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레드북' '쇼맨: 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 배우' 등을 작업하며 뮤지컬 팬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작품을 통해 실력을 입증한 배우 박진주, 김환희, 나하나가 주인공 '라이카'로 캐스팅되면서 뮤지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주로

공연명과 주인공 이름 모두 '라이카'입니다. 포스터에는 '우주개 라이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라이카는 어떤 강아지였을까요?

라이카는 최초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실험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누가 더 빠르게 우주로 나가는지, 누가 더 나은 기술로 안정적인 비행을 하는지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라이카는 소련이 진행한 지구 생물의 우주 생존 가능성 실험을 위해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소련은 1957년 11월 3일 스푸트니크 2호에 라이카를 탑승시켰습니다. 당시 소련은 빠른 기술 발전을 위해 스푸트니크 1호 발사 후 한 달 만에 2호를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준비 시간이 짧아 우주선에 귀환 시스템이나 라이카를 치

료할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큰 소음과 고온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라이카는 발사 후 7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라이카는 모스크바의 떠돌이 개였다고 합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길에서 추위를 견뎌내는 유기견이 해당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좋아하고 영리했던 라이카가 고난도 훈련을 이겨내며 최종 탐사견으로 선발됐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라이카, 인간을 혐오하는 어린왕자

뮤지컬 '라이카'의 특별한 점은 두 가지 이야기를 섞었다는 점인데요. 바로 라이카와 어린왕자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는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라이카는 우주로 간 뒤 어린왕자의 행성인 B612에 불시착합니다. 어린왕자와 장미, 그리고 바오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라이카를 반겨줘요.

'라이카' 속 어린왕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뮤지컬은 소설의 이야기 이후를 다루는데요. 어린왕자는 친구를 만나러 다시 지구로 갑니다. 하지만 어린왕자는 전쟁을 겪으며 그 폭력성에 인간을 혐오하게 돼요.

어린왕자는 라이카와 같은 희생자가 더는 생기지 않게 지구 전체를 파괴하려 하고 그 계획에 라이카가 동반자로서 함께해주길 원해요. 그러나 라이카는 지구에서 자신을 관리해줬던 캐롤라인을 그리워하며 지구로 하루빨리 돌아가기만을 원합니다.

라이카와 어린왕자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성과 희생의 당위성을 비판해요. 동시에 인간을 혐오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달아가는 어린왕자의 모습을 통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뮤지컬 '라이카'는 제3자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봄으로써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관객은 어떻게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고민하게 돼요.

하소윤 인턴기자



문화정보 CHECK

인간 대신 우주로 보내지며 지구 궤도에 최초로 진입한 강아지 라이카는 어른이 된 어린왕자를 만나고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질문하는 뮤지컬 '라이카'는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5월 18일 까지 공연합니다.

건강을 위해 ‘제로’ 고른다? ... 맹신은 안돼요



게티이미지뱅크



김보람 기자의
보람찬 건강이야기

요즘 어디서든 ‘제로(0)’가 붙은 식품을 볼 수 있죠. 탄산음료에서 시작된 제로 열풍은 이제 과자, 젤리, 아이스크림, 커피믹스까지 식품 분야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최근엔 제로 비빔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생각해 제로 식품을 고르는 학생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로라고 무조건 건강한 건 아닙니다.

‘제로’ 수요 폭발에 시장도 급성장

제로는 식품에 들어 있는 당류나 열량이 0인 것을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100ml(100g)당 과당이 0.5g 미만일 때, 혹은 열량이 4kcal 미만일 때 ‘제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식품과 맛은 비슷하지만, 당과 열량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 음료 시장 규모는 2019년 1630억원에서 2023년 1조2780억원으로 5년 새 7.8배 성장했습니다.

청소년들도 제로 식품을 많이 찾는 듯합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탄산·에너지·이온·과즙·커피음료·가당우유 등 단맛 음료 섭취율은 남학생 69.4%, 여학생 60%였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은 단 음료를 찾고 있던 건데, 편의점 탄산음료 매출 절반이 제로라고 하니 많은 청소년이 제로음료를 섭취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단맛 설탕 600배 ‘대체감미료’ 사용

제로 식품에 쓰이는 대체감미료는 △인공·천연감미료(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 △당알코올(자일리톨, 소르비톨, 말티톨 등) △저열량설탕(알룰로스, 타가토스) 등입니다. 이들은 일반 설탕과 같은 양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열량은 비슷하나 160~600배 더 답니다. 같은 단맛을 내더라도 설탕보다 아주 적게 써도 되니 제로 식품에 사용됩니다. 현재 식약처가 허용한 대체감미료는 총 22종입니다.

식약처는 대체 감미료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해로운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1인당 1일 섭취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아세설팜칼륨의 1일 허용량은 900mg(15mg/kg × 60kg)입니다. 보통 탄산음료 1ℓ에 최대 150mg의 아세

설팜칼륨이 들어 있으니, 한 캔(250ml)의 함유량은 허용치보다 매우 적습니다.

일부 대체감미료, 소화불량·당뇨 유발

그렇다고 대체 감미료의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제로 음료를 마음껏 마셔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감미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알코올은 하루 20g 이상 섭취하면 소화 불량, 설사 등을 유발합니다. 위와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 가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2020년 미국 예일대 연구진은 “인공감미료와 탄수화물(당류)이 같이 들어간 식품을 많이 먹으면 단맛에 대한 뇌의 반응이 떨어지고, 당 섭취 시 나타나는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슐린은 몸의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민감성이 저하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단맛 중독 일으켜 체중 감량에도 ‘글썸’

제로 식품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단맛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인공 감미료가 몸에 흡수되지 않아도 우리 뇌는 달콤한 맛을 그대로 느낍니다. 이때 뇌가 쾌감을 느끼고, 단맛을 더 달라는 보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단맛에 대한 욕구와 식욕이 증가해 다른 고열량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대체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성인은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무설탕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비전염성 질환 위험 감소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매경헬스 기자

국내 제로음료 시장 1조원
5년 새 8배 가까이 커져

총 22종 대체감미료 허용
1일 섭취 허용량 제시
부작용 속속 일으켜
지나친 섭취는 금물

일자리는 느는데, 노동력은 줄어든다면?



NIE/영문뉴스 돋보기

Korea to face labor shortage due to low birth rates, aging population

South Korea is expected to begin experiencing a decline in its employed population starting in 2029 as a result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a study showed on Monday. According to a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on Mid- to Long-term Workforce Supply and Demand Projections (2023-2033), ①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15 and older is expected to decline in 2030.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projected to grow** by only 248,000 in between 2023 to 2033. The number of workers will also begin declining even sooner, with an increase of 397,000 jobs until 2028. It will then begin to shrink, resulting in a net decrease of 85,000 jobs by 2033. The total employment increase for the 10-year period will be 312,000, just one-tenth of the previous decade's 3.117 million increase.

Industry-wise, employment is expected to grow the most in the social welfare and healthcare sectors **as demand for** care services rises amid population aging. The publishing industry, including software development, is also expected to expand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However, employment in retail, food and beverage, wholesale, and product brokerage will likely decline due to ②structural shifts, including the rise of online platforms.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rojected that an additional 821,000 workers will be needed by 2033 to ensure a long-term ③economic growth rate of 1.9 percent. Without an adequate ④labor force, economic growth could fall below expectations, the study added. To address the workforce shortage,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emphasized the need to boost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young people, women, and older workers. Customiz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respond to industry and occupational changes. "The first priority is to introduce incentives that encourage greater workforce participation among women, youth, and seniors," said an official from the service. "Also,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timely adaptation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mitigating** labor shortages."

By Choi Ye-bin and Han Yubin

[© Pulse by Maeil Business News Korea & mk.co.kr. All rights reserved]

한눈에 보는 기사 요약

미래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2033년까지 24만 8000명만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는 무려 31만2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복지 및 보건 분야는 성장세가 예측되나 소매 및 요식업은 온라인 플랫폼 확대에 의한 후퇴가 예상됩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청년 그리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권장하고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주희 연구원

영어로 배우는 경제용어

- ①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사람(학생, 전업주부, 은퇴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합니다.
- ② **Structural shift (구조적 변화)**
경제나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Structural change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③ **Economic growth rate (경제 성장률)**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주로 GDP(Gross Domestic Product)를 기반으로 측정합니다.
- ④ **Labor force (노동력, 노동 인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배운 용어 '경제활동인구'와 동의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영어 단어 및 표현

- (be) **projected to ~**: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 : projected to increase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 ~ -wise**: ~에 관하여, ~의 면에서
(예 : health-wise → 건강 면에서)
- as demand for + 명사(어떤 것에 대한 수요) + 동사(변화의 결과)**: ~에 대한 수요가 ~함에 따라
(예 : As demand for smartphones declines, manufacturers are cutting production. →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 implement**: 실행하다, 이행하다, 도입하다
(예 : implement a new system → 새 시스템을 도입하다)
- mitigate**: 완화하다, 경감하다
(예 : mitigate risk → 위험을 완화하다)



청년 취업난, 희망을 놓지 말자

광남중학교 3학년 배민서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청년 취업난’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자격증과 인턴 경험으로 무장한 청년들이지만, 그들의 도전은 여전히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춰 섭니다. 직장을 구하는 일이 단순히 직업을 얻는 것 이상의 문제로 다가온 지 오래입니다. 이제 취업은 ‘어떻게든’이 아니라 ‘혹시나’라는 희망을 품고 바라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청년층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뚜렷한 결실을 얻지 못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더 큰 압박감을 줍니다. 청년들의 ‘자기 부정’은 점차 심리적인 문제로 확장되어 취업이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절박한 질문으로 변질됩니다.

그럼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이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보틱스 학교수업 더 늘려야

세인트존스버리 아카데미 제주 10학년 허수빈

VEX V5 로보틱스 국가대표 선발전이 2025년 3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도 세인트존스버리 아카데미(SJA)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200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엔지니어링 대회로, 참가자들은 제한된 부품과 규정을 준수하며 로봇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학적 사고력, 팀워크, 창의성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주 한국국제학교(KISJ)의 ‘30597E’와 ‘30597C’ 팀이 토너먼트 챔피언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개최 학교인 SJA의 ‘30410X’와 ‘30410U’ 팀은 토너먼트 준우승을 달성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SJA의 Mr. Bennett 선생님은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과제를 미리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로보틱스 수업은 일반 한국 학교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로보틱스 교육의 보편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로 선발된 팀들은 오는 5월 4일부터 미국 델러스에서 열리는 월드 로보틱스 대회(WRC)에 출전해 전 세계 최고의 로봇 공학 팀들과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K유통업, 위기를 기회로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현태림

홈플러스가 갑자기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문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내 2위 대형마트의 위기는 K유통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위기의 주요 원인은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이들과의 경쟁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C커머스의 국내 결제 금액이 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형마트는 2012년 유통법 제정 이후 월 2회 의무 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의 규제로 e커머스의 핵심 경쟁력인 ‘새벽배송’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온라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례로 국내 편의점들은 O4O(Online for Offline) 마케팅을 통해 앱 기반 서비스 확대, 팝업 행사 등은 오프라인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온·오프라인의 강점을 융합하는 전략이 유통업계의 핵심 생존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국내 유통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기회 삼아 과감한 혁신에 나선다면 새로운 시대의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가성비 시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임주영

최근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대표적인 ‘가성비’ 브랜드로 알려져 있어 고가의 건기식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는 점이 눈길을 끄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비타민C, 오메가3 등 대중적인 건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제품에 따라 한 달에 3000~5000원 수준으로, 시중 판매가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이처럼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소 건기식이 기존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이소 측은 ‘모든 제품이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기존 브랜드 제품과 품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다이소의 건기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건기식은 신뢰가 중요하기에 품질 관리,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건기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 가격 경쟁력만 앞세운 시도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 2024-254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50회

틴매일경 Test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공식 인스타그램
@mknews_lab



*공식 유튜브
매테나

시험일

2025.05.24(토)

접수기간

2025.04.07(월)
~ 05.12(월)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일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장승준, 손현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